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을 향한 KOFIH의 감염병 대응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OFIH 또한 이에 발맞춰 결핵 환자 발견 및 역량 강화사업, 감염병 진단 및 검역 체계 구축사업 등 감염병 관리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조기 발생 탐지, 조속한 대응을 위해 KOFIH는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SUMMER 2020
Vol.53



Contents

SUMMER 2020 Vol.53
www.kofih.org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Letter

발행일 2020년 7월 9일

정기간행물신고번호 서울 중, 바00157

재단발행자등록번호 정가-6-2020-1

발행인 추무진

편집인 최원일

발행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소 0453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6, 7층

전화 02-3396-9700

기획·편집 KOFIH 경영기획부 02-3396-9830

취재·디자인·제작 코리아프린테크 02-2264-3325

발행에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KOFIH Letter)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
인 근로자 등에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
되는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
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의거 2006년
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보건복
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2020 KOFIH PROJECT MAP

KOFIH 주요 사업 현황 지도 04

KOFIH Letter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응원해주십시오 06

기획특집 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을 향한
KOFIH의 감염병 대응 08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OFIH 또한 이에 발맞춰 결핵 환자 발견 및 역량 강화사업,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 등 감염병 관리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조기 발생 탐지, 조속한 대응을 위해 KOFIH는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plore the World / 세계 속의 KOFIH



10



14

포토 에세이

사진으로 보는 글로벌 코로나19 현황 10

The Way Forward

코로나19와 한국의 국제보건 ODA 전략 12

글로벌 리포트 I

KOFIH와 8개 ODA 협력국이 함께 걷는 선진 방역의 길 14

글로벌 리포트 II

KOFIH와 함께 구축하는 라오스·필리핀 감염병 관리 시스템 18

Inside KOFIH / KOFIH 속으로



22



24

KOFIH 인사이드

떠나볼까? KOFIH마블! 20

현장 다이어리

KOFIH 가나·미얀마 사무소, 하나의 성공으로 또 다른 성공을 꿈꾸다 22

KOFIH NEWS

KOFIH의 주요 동향과 이슈 24

Culture for You / KOFIH 문화산책



28



30

지구촌을 밝히는 '한국인 슈바이처'

최마지아 수녀, 작은 희망이 위대한 생의 시작이 되다 28

21세기 신종 감염병 바로 알기

삶의 터전 잃은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인수공통감염병 30

독자의 소리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32



모자보건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결핵 등
감염병 관리사업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구축사업



병원 운영
컨설팅 사업



민관 협력사업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사업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사업



의료자원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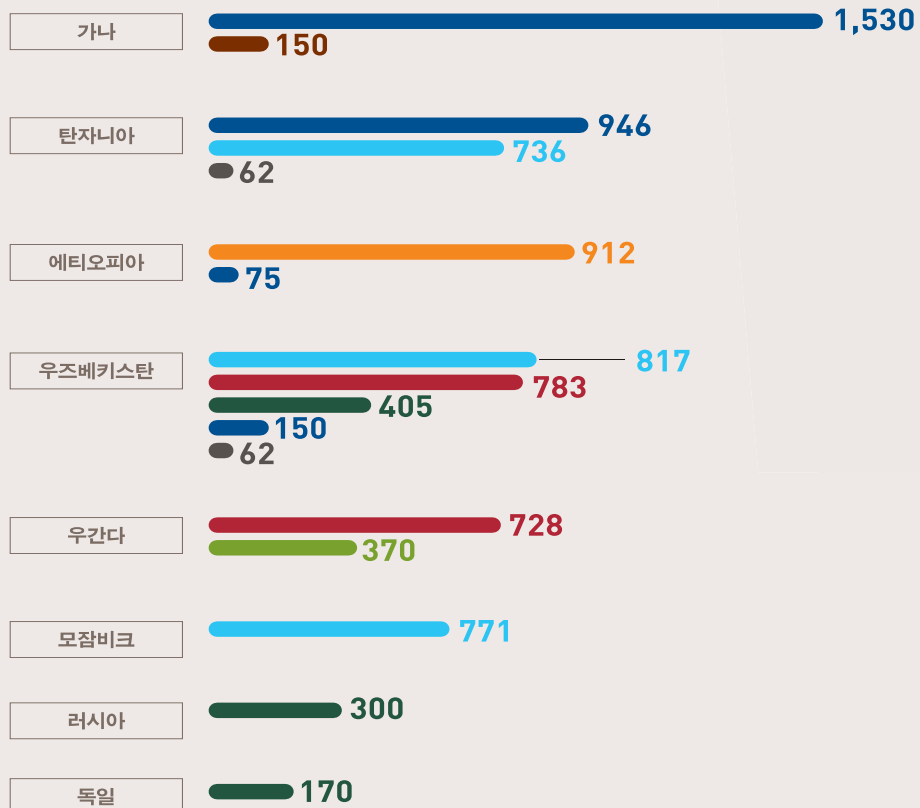
2020 KOFIH PROJECT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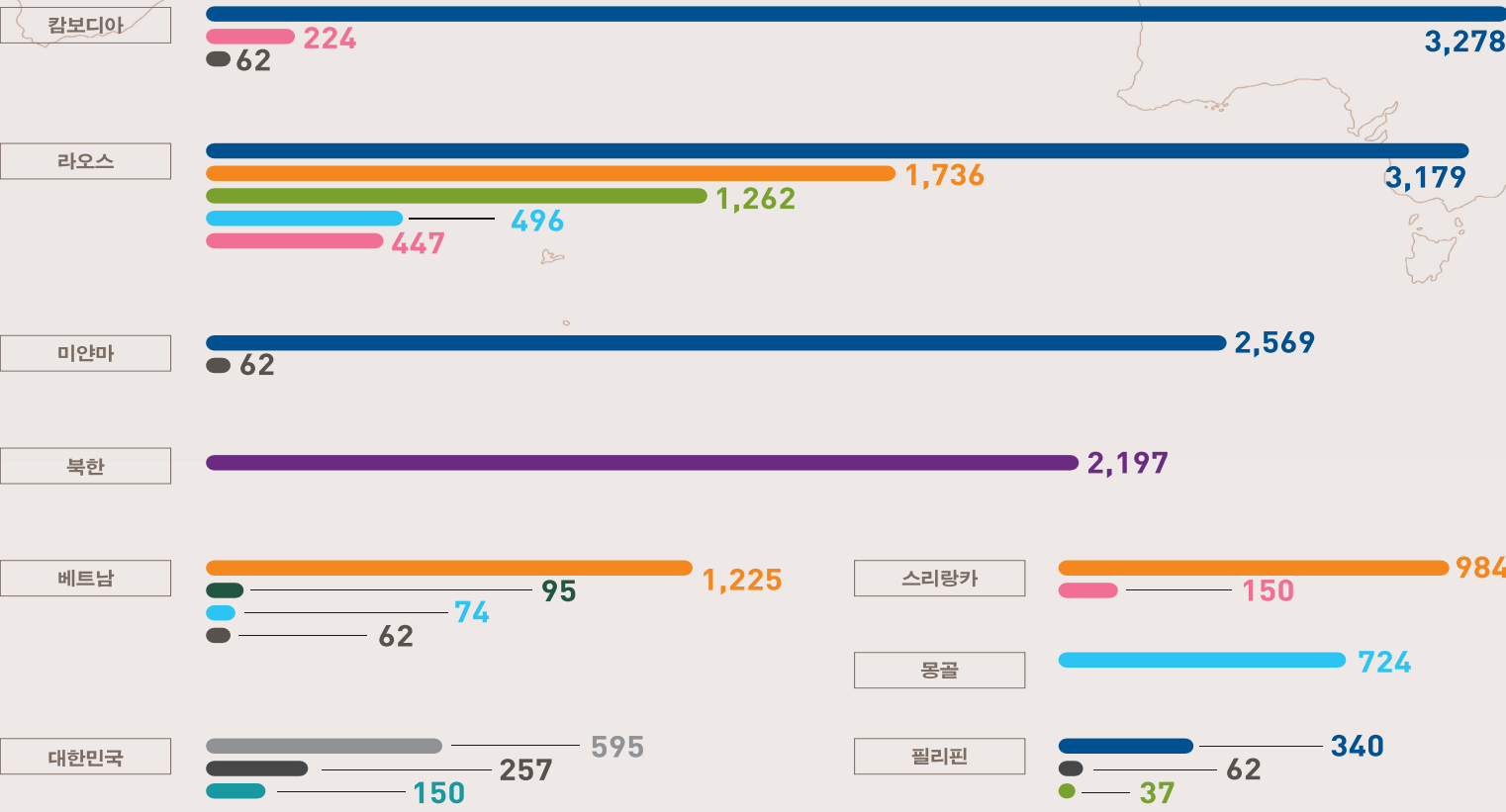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6,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 HAS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DEDICATED
TO THE BETTERMENT OF
HEALTH AND MEDICAL
SYSTEMS AND BOLSTER
CAPACITIES FOR THE PEOPLE
IN PARTNER COUNTRIES.



Ghana(가나)

(단위 : 백만 원)





KOFIH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응원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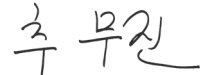
계절의 시계는 벌써 녹음이 짙은 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과는 달리 전 세계는 코로나19 시대 첫 여름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개발도상국과 의료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을 웃돌고 있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다양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및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127개국이며, 민간 경로까지 합하면 유엔 회원국의 76%인 147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른바 K-방역을 배우고 K-방역을 자국의 방역 시스템 구축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5월 18일 있었던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하자고 역설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한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재단은 글로벌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으며,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호는 감염병 특집호로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감염병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협력국에서의 KOFIH 감염병 사업 현황,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해 협력국과 상생·개발·협력하는 KOFIH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한 현대사회에서 감염병은 한 지역뿐만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재단은 협력국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을 조기 탐지하며,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을 위한 KOFIH의 발걸음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응원해주십시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을 향한 KOFIH의 감염병 대응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감염병이 퍼지면 기아와 빈곤이 더욱 악화됩니다. 또한 국제적 교류가 증가한 현대사회에서 한 지역의 보건 위기는 세계 여러 나라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KOFIH는 결핵 환자 발견 및 역량 강화사업,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 등 감염병 관리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을 향한 KOFIH의 발걸음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1

감염병이란...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 혹은 병원체의 독성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으로, 병원체나 독성물질에 감염된 사람과 동물 혹은 무생물 환경으로부터, 취약한 동물이나 인간 숙주에게 전파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02

국제사회의 감염병 현황



저소득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76.8%가 깨끗한 물과 비누 등 손 씻기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보건 의료 시설 또한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소득국의 감염성 질병 및 열악한 모자보건 환경 등에 따른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의 67.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03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이에 보건 분야 주요 공여국들은 개도국 내 감염병 확산을 해당 개도국의 보건 저해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제로 인식하고, 감염병 대응정책·전략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총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의 54%를 3대 주요 감염성 질환인 결핵, 말라리아, HIV·AIDS와 기타 감염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04

우리나라와 KOFIH의 감염병 대응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OFIH 또한 이에 발맞춰 감염병 관리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생을 탐지하며,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KOFIH는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REC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글과 마스크를 쓴 영웅들은
오늘도 굳게 다짐하며 전쟁터 같은 의료 현장을 누립니다. 이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절망으로 가득한 도시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국경과
인종, 이념을 넘어 의료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구원의 손길을 건넵니다.
서로를 향한 눈빛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이제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며 희망찬 내일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다시 건강하게
웃는 그날을 위해 KOFIH는 오늘도 그 용기와 실천의 여정에 동행합니다.

3...2...1...1...2...3





코로나19와 한국의 국제보건 ODA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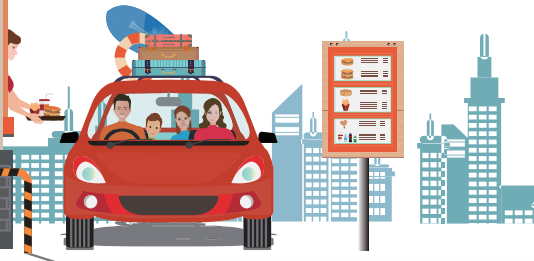
글_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조기 진단, 조기 치료,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한 추적이 주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약물에 의한 예방과 확산 방지(Pharmacologic Intervention)보다는 비약물적 예방과 확산 방지(NPI, Non-pharmacologic Intervention)가 현재 가장 중요한 예방 수단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 한국형 NPI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기 진단(Test)과 조기 치료(Treat), 확진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Trace)으로 요약할 수 있다(표).



3T	사례
Test	■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진단키트 상용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유효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유효성 평가를 바탕으로 신속 승인이라는 행정적 제도를 이용해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진단체계를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구축 1 대구·경북의 대규모 환자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와 검체 채취를 위해서는 대규모 선별진료가 필요할 때 Drive Thru/Walk Thru와 같은 신속한 검체 채취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민간에서 제시했고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Trace	2 코로나19 초기 유입 상황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역학조사의 기법은 확진 환자와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됨 3 4월 말~5월 초 연휴기간 동안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로 인해 이태원발 집단발병이 발생했을 때 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을 활용하고 신용카드 결제, CCTV 확인,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을 통해 접촉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익명감사제도를 도입해 조기에 집단발병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음
Treat	4 대구·경북지역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해 병상 부족 상황으로 제때 치료와 입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자가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태의 심각성에 대응해 민간영역에서 감염병 환자 수용에 참여하여 많은 환자들이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대구·경북 지역 외 타 지역의 협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 5 감염병 전담병원의 입원 능력을 초과한 확진자는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한 생활치료센터의 아이디어를 정부가 받아들여 대구·경북 주변의 공무원연수원과 기업들의 연수원을 활용해 3000여 명의 확진자를 안전하게 격리하고 치료했음



저소득 국가들이 한국의 역동적 대응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야

저소득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감염병 감시와 진단체계의 구축, 해외 유입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됐다. 그러나 자국 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능동적 대응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저소득 국가와 공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저소득 국가에서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방역 성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개별 국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대응전략을 맞춤형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국가의 가장 취약한 인프라가 감염병 감시와 진단체계 구축인데, 이는 단순히 진단시약과 진단기계를 보내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감염병 감시를 위한 인력 양성, 지역보건체계의 역량강화, 실험실 감시체계 구축과 정보전달체계의 전산화, 지속가능한 진단 시약의 공급체

계까지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유입 감염병 환자의 국내 유입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KT가 구축한 스마트검역시스템을 활용해 저소득 국가의 ICT 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개별 국가의 검역에 있어 정보화 현황과 스마트폰 보급률 등을 고려하고 각 국가의 주요 통신사의 서비스 구조를 파악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가나와 케냐, 라오스에서 구축중인 KT의 GEPP(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의 활용도 검토해볼 만하다.

코로나19로 세계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은 단절을 소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능동성과 ICT를 활용한 역동적인 대응을 저소득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현지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한국 보건의료 ODA의 시급한 과제이자 저소득 국가의 희망이다. **K**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향한 노력

KOFIH와 8개 ODA 협력국이 함께 걷는 선진 방역의 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해외 각국의 관심과 함께 한국 방역물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들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KOFIH에 더 적극적인 인적·물적 자원과 노하우의 교류를 요청하고 있다. 글로벌 방역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KOFIH와 8개 협력국은 국제협력과 인도주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변함없이 동행하고 있다.

글 송준호



전면 봉쇄로 확산 막은 가나

코로나19 발병 이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던 가나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 KOFIH의 대응은?

볼타 및 오티 지역에서 모자보건 증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OFIH는 체외진단검사를 위한 진단 키트와 개인보호장비(PPE)를 국내에서 구매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가나 중앙보건부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지원 관련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서서히 일상 복귀 중인 우간다

전면적인 국경 봉쇄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우간다는 공공장소에서 종교 행사를 비롯한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6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운행을 재개하며 70일 이상 계속됐던 폐쇄 조치를 조심스럽게 완화하고 있다.

☑ KOFIH의 대응은?

국가 결핵관리 역량 강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KOFIH는 체외진단검사를 위한 진단 키트를 요청받아 지난 5월 현지 운송을 마쳤다. 또 응급의료 중심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과 관련해 개인보호장비와 코로나19 대응 교육훈련도 국제부담금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 회복 기대하는 탄자니아

탄자니아는 코로나19 확산 후 휴교 조치와 행사 및 스포츠 경기 취소, 호텔 및 관광시설 운영 중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건물 입구에서 발열 체크 및 손세정제 비치, 대중교통 좌석제 등을 통해 진정 국면을 꾀했다. 얼마 전에는 중단했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해외 입국자의 의무 격리도 해제했다.

☑ KOFIH의 대응은?

무함발리 국립병원 응급간질라 캠퍼스의 운영관리 컨설팅 2차 사업을 진행 중인 KOFIH는 탄자니아의 개인보호장비 지원 요청에 따라 구매 후 운송을 진행 중이다.



제한적 봉쇄 택한 우즈베키스탄

확진자의 증가세에 따라 외출 금지를 시행했던 우즈베키스탄은 한때 공항 폐쇄와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으로 진정을 노렸다. 외국인의 입국은 물론 자국민의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도 높은 통제를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6월 15일부터 일부 대상자에 한해 제한적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 KOFIH의 대응은?

우즈베키스탄에서 KOFIH는 국립아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현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청받은 개인보호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생활방역 내세운 에티오피아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조치, 외국인의 육로 입·출국을 금지했던 에티오피아는 기본적으로 대중 교통 이용객의 수를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버스정류소는 82개 노선만, 트럭에는 1인만 탑승하도록 허용했다.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육점의 내부 청결 유지와 직원의 위생용품 착용 및 거리 유지, 생고기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이어갔다.

☑ KOFIH의 대응은?

6·25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는 지난 4월 한국 정부로부터 마스크 4만 장을 지원받으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물품 지원 수혜국이 됐다. 또 모자보건 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과 관련해 KOFIH는 체외진단검사를 위한 PCR 장비와 진단 키트, 개인보호장비까지 지원 중이다.



입국 관리에 초점 맞춘 미얀마

바이러스 발병 초기부터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 등으로 외부 유입을 경계해왔던 미얀마는 3월 2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도착 후에도 14일간의 시설·자가격리를 병행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 KOFIH의 대응은?

양곤주에서 진행 중인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과 관련해 개인보호장비 구매 계약을 통해 현지에 물품을 지원했다. 또 요청받은 이동식 디지털 엑스레이도 국내에서 구매 및 운송을 진행하고 있다.



입국 제한 중인 관광대국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TV 원격 수업을 시행하며 코로나19 난국을 극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국 외국인에 대한 서류 검사를 강화하는 등 일반 관광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 KOFIH의 대응은?

'통합 모자보건 증진사업'을 진행 중인 KOFIH는 캄보디아에서 요청한 이동식 디지털 엑스레이, 환자 감시장치, K-워크스루를 현지에서 지원 준비 중이다.



동남아 최초의 코로나19 종식국 라오스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라오스는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 후 국경을 폐쇄하고 전 국민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이후 국민의 이동 제한, 사업장 임시휴업 등 감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을 이어갔다.

☑ KOFIH의 대응은?

'모자보건증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과 관련해 개인보호장비와 코로나19 대응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또 감염병 진단·검역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요청된 모니터링과 감독도 시행 중이다. 이 밖에 이동형 방사선 촬영장치, 환자 감시장치, 수액주입기, 체온계 등 기본 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등도 협의 중이다.

세계적 재난을 계기로 공고해지는 국제협력의 길



우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콜센터 직원 교육.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급증한 초기부터 잘 대처하며 사태를 진정시켜가고 있다.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등 각국에서 우리의 감염병 대응 경험, 이른바 'K-방역'에 대한 공유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 같은 요청은 물리적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이라 화상회의나 웹 세미나라는 한계가 있는데도 국가나 기구를 포함해 150건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하는 이 TF에서 KOFIH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 분야의 웹세미나를 주도하고 있다.

위급 상황에는 선후가 없지만, 현재 시급한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KOFIH의 ODA 협력국들이다. 가령 라오스는 얼마 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인구 720여만 명 중 검사는 8926건(6월 8일 현재)에 불과해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19

명에서 멈춰 있는 확진자 수도 진단검사나 보건의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염소와 파파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검진 키트의 결함을 주장했던 탄자니아의 경우도 보건의로 자원이 열악한 현지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KOFIH를 비롯한 우리 정부 각 산하기관들은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라는 생각에서 ODA 협력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교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가용한 자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중이다. 우선 진단 키트와 리얼타임 PCR, 디지털 포터블 엑스레이를 먼저 보내고 국내에서도 현재 재고가 없는 인공호흡기도 여유가 생기면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현재 협력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개인보호장비도 지원을 고려 중이다. 물품 지원과는 달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현지에서 구축·강화하는 방법은 KOFIH로서는 여전히 고민의 대상이다. 그

나라의 감염병에 관련한 법령이나 행정 제도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적자원을 동원해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같은 체계를 통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의 대응체계가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니기에 경험 공유와 함께 서로의 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 교류하는 과정도 고려하고 있다. 전문인력들이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서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춰 디자인을 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표준 방역 절차 구축으로 글로벌 방역 강화해야

바이러스 확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과 감지다. 아무리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지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해당 국가에 예방 감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다음은 진단 검사다. 감염병 발생 시 공공병원의 실험실 역량 강화와 발생한 환자의 치료 관리방법도 병행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K-방역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요인으로 흔히 '4T'가 꼽히곤 한다. 이는 Test(검사·확진), Tracking(추적), Treat(치료), Trust(신뢰)를 가리킨다. 특히 마지막의 '신뢰'는 정부가 발표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의미가 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이를 정비해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략을 확정했다. 이는 검사·확진

(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의 '3T'로 압축된다. 이런 절차가 표준화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의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T'든 '4T'든 각각의 과정에서 정책·행정이나 예방 감지 등 분야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현지에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단순한 물자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지 인력들이 그 물자를 자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KOFIH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에 따라 기존 ODA 사업도 더욱 강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 KOFIH는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전선에 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자신만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국립중앙의료원은 ODA 사업국의 연수 인력에게도 생생하고 효과적인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K**



interview

전주환 KOFIH 글로벌개발협력본부 본부장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구촌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 ODA 협력국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한국보다 확진자 수는 적지만 보건 의료 환경의 차이 때문에 실제 상황은 더 열악할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확진자 발생 시 추적 시스템이 없고, 적절한 치료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하루에 50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버틸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10명만 나와도 상황이 악화될 때가 많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모든 보건 의료 장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간다나 가나처럼 대처를 잘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대개의 나라들이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합니다.”

– 현지 피해 상황에 따라 사업국들의 요청 내용이나 방식도 다를 듯합니다.

“정책 지원, 지식과 경험 공유, 긴급한 물자 등 요청 내용은 다양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실제 대처 상황을 보고 싶다는 나라도 많습니다.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 기본 진단체계와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도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차후 2차 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한국과 사업국 전문인력이 교류하면서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에 공동 대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구촌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때입니다.”

– 협력국에서는 이런 선진 방역기술에 앞서 개인 방역 관련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손소독제를 요청한 나라도 있었는데 당시 우리도 해외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대신 현지에서 구매하도록 현금 지원을 제한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위생과 관련해 'WASH'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식수 관리(Water)와 환경 위생(Sanitation), 개인위생(Hygiene)이 균형을 이뤄야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이나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개인의 작은 습관부터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 이후에도 코로나19와 동행하는 시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ODA 협력국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은 어떤 형태로 이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장이나 전문가 파견, 현지교육, 초청연수 등이 다 제한된 상황에서 당분간은 물자 지원이나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상황이 정리되면 일정 부분 초청연수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현지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실험실이나 공공병원의 시설 개선, 음압병동과 인공호흡기 지원, 예방·감지 노하우도 현지에 가서 직접 전수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는 관련된 내용을 다 추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실천

KOFIH와 함께 구축하는 라오스·필리핀 감염병 관리 시스템

전 세계적 재난을 계기로 세상은 다시금 깨닫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인종, 국적, 민족을 넘어 ‘인류’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로 연결된 이 세계에서 우리가 타국을 도우면 결국엔 자신을 돕는 것이다. 단지 타인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노하우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함께 웃을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KOFIH가 함께하고 있는 라오스, 필리핀의 이야기다.

글_ 송준호

선진 방역기술로 체질 개선하는 라오스



라오스 감염병 관리 관계자 국내 초청 워크숍 폐회식.

라오스는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협력사업과 이종욱 펠로우십 참여 등으로 한국과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북동부 시엥쿠앙, 후아판 지역은 KOFIH의 모자보건 사업 후 산전

관리 서비스를 받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KOFIH는 보건시설 조성과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중 근래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역시 감염병 진단과 검역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을 이행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우리 정부도 동참한다는 취지



라오스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KT와 동행한 현지 사전조사.

와 일맥상통한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라오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때 한국 통신기업 KT도 ‘GEPP(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으로 힘을 보탰다. 이는 감염병 발생지역과 유행 감염병 증상, 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감염병 위험 알림 서비스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감염병 발생지역에 방문한 국민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의심 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증상을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어 차후 감염병 감시와 모니터링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OFIH는 땡기열 진단시약 3종을 지원하고, 비엔티안과 시엥쿠앙에 감염병 긴급대응팀 교육훈련을 진행하면서 검역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보강에 나섰다.

이와 함께 KOFIH는 라오스의 감염병 관리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때 한국 감염병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KOFIH의 감염병 관리사업을 공유하는 이론 강의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등 감염병 관리사업 유관기관과 국립병원 같은 국내 보건시설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현장 견학도 병행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는 해외 유입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업무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내 감염병 관리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현지 전문인력들은 라오스 감염병 관리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총 5년 동안 진행될 이 사업에서 2년 차를 맞은 올해, KOFIH는 본격적으로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동을 건다. 먼저 라오스 국립역학실험센터와 도 실험실을 대상으로 진단 시약을 제공하고, KT와 협력해 GEPP의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 및 유지·보수 등을 실행에 옮긴다. 또 감염병 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역학실

험센터 실험실의 역량을 키우는 한편, 역학 조사관과 검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감염병 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라오스가 감염병 진단과 검역체계 운영

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자립 역량을 키워냄으로써 향후 감염병 관리에서 스스로 성과를 내는 주인의식(Ownership)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관건이다. KOFIH와 라오스 보건부는 이러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계속하고 있다.

결핵 없는 세상 위해 손 맞잡은 필리핀



필리핀 엑스레이 판독 교육.

‘It’s time!’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표어로 정한 이 말은 결핵 퇴치를 위해 행동할 것을 인상적으로 축약한 것이다. 정확히는 전 세계 결핵 유행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각국이 지금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흔히 결핵은 ‘후진국병’, ‘잊힌 질병’으로 인식되지만 의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병률 1위,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결핵 고위험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는 결핵이 다른 전염병과 더불어 여전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다. 결핵은 국민 사망 원인 중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필리핀에서 치명적인 질병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침과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현지에는 제대로 된 검진 시스템이 부족하고 치료비도 비싸 결핵을 방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KOFIH는 2011년부터 결핵 관리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화된 결핵 검진장비를 지원하고, 검진 인력을 교육시켜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검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KOFIH와 필리핀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해 본격적으로 결핵 관리에 나섰다. 우선 이동 검진차량과 거점병원을 통한 환자 발견사업에 착수했다. 또 현지 민간단체의 보건요원을 활용한 환자 발견 촉진활동을 장려했다. 이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실천을 통해 지난해 결핵 환자 발견 건수 증가율은 47%나 됐다.

역량 강화사업 역시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결핵 관리 및 검사실 요원, 마을 보건요원에 대한 현지교육과 국내 초청연수를 통해 검진 시스템에 대한 자가 운영능력을 배양했다. 또 거점병원의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엑스레이 판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다. 2017년부터

는 데이터 관리자를 위해 데이터 입력 훈련과 디지털 엑스레이 유지관리 교육까지 병행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KOFIH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올해부터 팔라완 지역을 대상으로 환자 발견과 진단능력 개선을 통한 결핵 관리 중·장기 행동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필리핀의 책임하에 국가 결핵전략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 이후 협력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면서 자립역량 배양을 독려하고 있다.

향후 결핵 관리역량 강화사업의 종료 시 KOFIH는 사후 관리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기존에 지원한 기자재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해주며 현지 의공기사와 방사선사도 교육하는 자립역량 강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학도, 진단 및 치료도, 예방도 모두 결국은 사람의 일이다. 그래서 KOFIH는 팔라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결핵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갖고 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함께 건강해지는 세상. KOFIH의 꿈은 그렇게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K**



필리핀 결핵관리 요원 연수.

떠나볼까? KOFIH마블!

광복과 6·25전쟁 이후 전 세계의 보건의로 손길이 우리나라에 베풀어졌다. 우리는 그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더욱 체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구촌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존재한다.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KOFIH가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는지 'KOFIH마블'을 통해 알아보자.

글_ 김보미

황금열쇠 1

지구촌 모든 이가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 ODA!

모자보건 증진사업 개발도상국은 모성 사망비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매우 높다. 의료시설과 인력,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 KOFIH는 각 사업 대상국의 모자보건 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가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사업 결핵 고위험 국가인 필리핀과 남수단, 우간다에서 고성능 결핵 진단 기자재를 지원하고 이동검진차량을 운영. 현지 교육을 통해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 라오스에서도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지원사업 보건의료체계 초석을 다지기 위해 해당 국가 보건부와 협력해 보건행정 관리역량 강화, 의료 서비스 질 개선, 식수 위생 개선, 의료인력 교육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병원 운영 컨설팅, 인력교육 제공을 통해 성공적 개원 및 운영을 지원한다.

04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지정(2009.01)

WHO·KOFIH
이종욱기념공공보건상
제정(2009.01)

05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
원 개원(2010.03)

06

개성공단 보건의료협력
요원 파견 개시(2010.05)

03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시작(2007.09)

02

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2006.06)

0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정·시행(2005, 200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설립(2006.08)

출발!

국제보건의료
발전재단으로 설립
(2004.03)

**다음은 어디로
떠나볼까?**

지구촌 모든 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KOFIH의 여정은
계속된다~ 쭉욱!

15

신남방·신북방 정책
구현 등 정부 국정과제
이행 지원(2019~)

황금열쇠 2

개발도상국 현지인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WHO 직원 대상 연설, 2003. 7. 21. 스위스 제네바)

2007년 시작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인 '이종욱펠로우십'은 2019년 현재 29개국의 의사, 간호사, 의공기사, 보건정책 전문가 등 948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보건의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고(故)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받아 '이종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보건 분야의 뛰어난 공헌자를 대상으로 WHO 이종욱공공보건기념상을 시상하고,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며, 보건의료 분야 국제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07

라오스 해외사무소 개소
(2010.06)

08

캄보디아 해외사무소
개소(2012.05)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09

아프리카 지역 사업
진출(2013)

개발, 수행, 평가 추진 등
보건 ODA 추진체계
고도화(2013)

10

기획재정부(EDCF),
KOICA 등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2014)

11

미얀마·필리핀·
에티오피아 해외사무소
개소(2014.04)

12

가나 해외사무소 개소
(2015.06)

우즈베키스탄
해외사무소 개소(2015.07)

14

탄자니아,
우간다 해외사무소 개소
(2017.03)

13

재단 창립 10주년
(2016.08)

황금열쇠 3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북한 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해 한반도의 건강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관리하고 온정인민병원, 적십자병원, 개성공업지구 북측진료소 등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역량 강화를 돕는다.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연해주, 독일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고려인 홀몸노인 요양원 지원, 사할린 1세대 동포 보건의료 지원, 파독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입소요양보호 서비스, 초청 건강검진, 가정간호 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금열쇠 4

헤아릴 수 없이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KOFIH의 보건의료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2010년부터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예방을 위해 파상풍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12개 언어로 제작된 건강정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단체와 보건소에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 지원사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재난 발생에 대비해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인력 인력풀을 구축하고 WHO 응급의료팀(EMT)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물자 수집 지원사업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을 KOFIH가 구입하거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아 북한, 외국인 근로자, 개발도상국 등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의료기기 기술인력 교육사업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현지인을 초청해 의료기기 전문가, 의공기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의 경우 현지 교육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의료기기 수리 및 예방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KOFIH 가나·미얀마 사무소, 하나의 성공으로 또 다른 성공을 꿈꾸다

성공은 하나의 끝이자 하나의 시작이다.
지금까지의 완성을 복돋우고 새로운 완성을 위해
나아갈 힘을 얻는 또 하나의 과정. 그 과정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토대로 2020년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는
KOFIH 해외사무소 2곳의 얘기를 들어본다.

글_ 김보미

가나 사무소 | 아프리카 보편적 건강 보장의 허브를 꿈꾸며

서아프리카의 허브인 가나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다. 그럼에도 가입률이 정제되고 운영 효율이 떨어져 '보편적 건강 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 어디에서나, 누구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가나의 미래를 위해 KOFIH와 가나 정부는 2013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일방적 예산 지원이나 가나 현지에 적용하기 힘든 노하우 제공 보다는 가나인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KOFIH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가나의 건강보험청과 보건부, 가나대학교가 함께 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후 현장에 정책을 도입하면서 6년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인고의 시간을 거치며 착실하게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온 가나 건

강보험. 가장 큰 장벽인 가입자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KOFIH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건강보험 지사까지 평균 2시간을 걸어가 4시간을 대기한 후 신청하고, 열흘 이상을 기다려야만 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KOFIH는 보건지소, 시장, 학교 등 커뮤니티에 모바일 가입기를 가져가 보험증을 즉석에서 발급해주는 시범사업을 펼쳤다. 이와 함께 가입자에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15.8%, 가입자를 통한 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18.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재가입 시스템을 개발해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협력 아래 시범 적용을 거쳐 마침내 2019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수기 작성 및 인편 제출로 효율성이 떨어지던 심사 청구도 개선됐다. 2018년 한국 정부의 컨설팅과 인력 훈련을 통해 개발된 자체 전산 플랫폼(ClaimIT)의 출시로 전체 심사 청구의 24.4%가 자동화돼 하루 처리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2019년 말 기준).

1~2차 사업의 성공으로 가나 정부는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 의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가입률이 40%대에서 60%로 확대되면 재정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KOFIH는 이러한 보편적 건강 보장의 성공이 가나를 중심으로 주변국으로, 주변국을 넘어 아프리카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UHC 사업과 함께 시행된 모자보건 증진사업 역시 큰 변화가 있었다. 낙후된 볼타주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시설 개·보수, 모자보건 필수 의료장비 및 교육 지원, 전통산파·시설분만 연계, 외진 지역의 아웃리치 지원, 보건통계 수집·분석 지원 등 다양한 사업



가나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2차 시범사업 모습.

을 시행한 결과 사업지 시립병원의 지역전원병원 승격, 통합 아웃리치 정부 정책 반영, 사업지 모성 사망비 하락(2017년 0건 달성 후 연간 1~2건 수준 유지), 보건부 연간 성과 사례 발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단기적인 성과는 시설과 서비스가 낙후돼 필수 의료 인력인 조산사 유치가 어려웠던 사업지 의료시설에 2배가 넘는 조산사를 파견할 수 있을 만큼 환경이 개

선된 것.

올해부터 시작되는 2차 사업은 응급산과, 집중치료, 전원체계 개선, 텔레메디슨 구축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위험 산모를 적시에 발견하고 상급병원으로 보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얀마 사무소 | 탄탄한 1차 보건의료체계를 꿈꾸며

한 국가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는 지역사회 주민이 제일 처음 접촉하게 되는 의료 서비스로서 국민 건강의 바로미터가 된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인 만큼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탄탄하게 바로 세우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얀마에서 KOFIH는 2014년부터 이 과정을 촘촘하게 이어오고 있다. 미얀마 최대 도시이자 과거 수도였던 양곤의 중심에서 90분 거리에 위치한 인구 27만의 레구타운십. 열악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으로 보건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이곳에서 KOFIH는 6년 동안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펼쳐왔다.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은 1978년 알마타타 선언에서 채택된 표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을 목표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자 사회적 목표인 인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KOFIH 미얀마 사무소는 레구타운십의 모성·신생아·아동 보건의료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식수 및 위생 환경을 개선하면서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레구타운십의 8개 보건소, 23개 보건지소, 18개 학교에 수도시설을 설치해 공공 식수위생시설을 개선하고, 27개 마을에 2752개 화장실, 18개 마을에 22개 수도시설을 설치해 지역사회 위생환경 개선에 온 힘을 기울였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 경험한 변화는 특별했다. 지역사회 주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수위생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식사 후 치위생 관리 등이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 공중보건센터 건립, 6개 보건소 및 9개 보건지소 신축, 3개 보건소 및 9개 보건지소 개·보수, 1만 2000여 점의 의료장비 지원 등 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더불어 조산사와 지역보건요원(CHWs) 등을 상대로 교육훈련도 함께 실시해 기초 보건 인력의 역량도 강화했다. 그 결과로 1차 보건의료시설 분만율은



미얀마 수도시설 지원사업.

연평균 약 7%, 이용 환자 수는 연평균 약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실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보건의료 인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이를 실행해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얀마 사무소는 운영 파트너인 지역 보건국과 타운십 병원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지역보건국(양곤주), 레구타운십, KOFIH 미얀마 사무소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를 갖춰 운영 파트너의 책무성과 참여의식을 크게 고취했고, 이는 결국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KOFIH는 규모를 확대해 2025년까지 ‘양곤주 북부지역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에 나선다. 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 현장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미얀마 사무소는 모니터링 횟수와 빈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며, 레구타운십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6년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다. **K**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20 KOFIH의 도전과 열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 보건의료·개발협력 아카데미 개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강영식)가 지난 5월 4주에 걸쳐 '북한 보건의료·개발협력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 매주 금요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이 프로그램은 '남북 교류협력 전망과 협력 방안'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 지원 경향,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수강생 참여 토론으로 구성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북한 개발협력 아카데미'가 통합된 이번 행사는 공동 개최를 통해 더욱 심화된 내용을 다루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 대응 후원금 전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과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이 5월 21일 재단 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국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3억5000만 원 상당의 이번 후원금은 재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 중인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에 의료진용 개인보호장비(PPE), 진단 키트, 국내산 의료기기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양 기관은 개도국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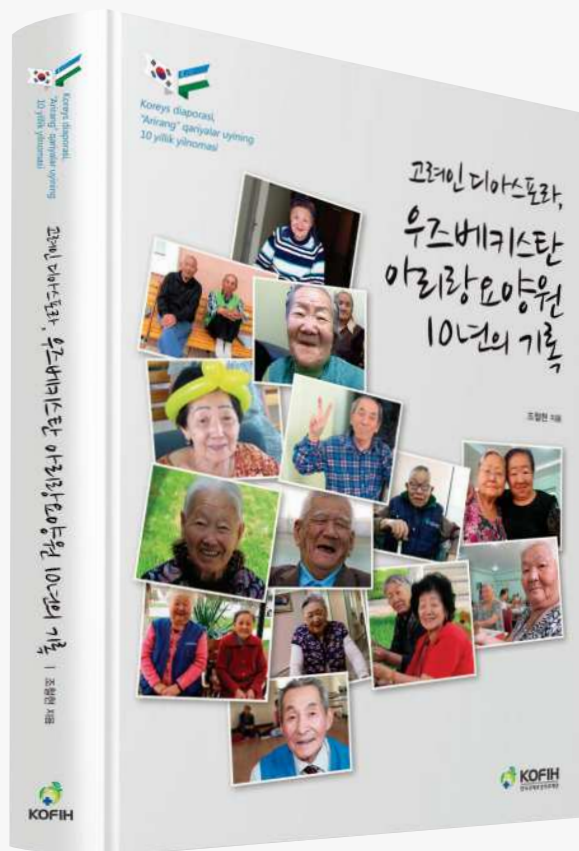


‘아리랑요양원 10년의 기록’ 책 발간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의 10년 역사를 집대성한 책이 지난 3월 20일 발행됐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 10년의 기록>(이하 <10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책은 2010년 3월 개원부터 지금까지 아리랑요양원의 활동 전반을 담았다. 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관계의 역사에서부터 최근 외교 상황, ‘아리랑’으로 만난 현지 한인 사회와 고려인 사회까지 다채로운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10년의 기록>은 2019년 4월 김정숙 여사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영부인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아리랑요양원을 함께 찾은 일화를 프롤로그에 담아 지난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 이후 아리랑요양원의 출범 배경부터 위치 선정, 개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짚으며 10년간의 의미를 되새긴다. 특히 입소자들의 사연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면면을 조명하며 요양원의 구축구축을 비추는 구성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한 <10년의 기록> 발간 작업은 지난해 말 시작돼 현지 취재와 편집을 거쳐 완료됐다. 집필은 지난해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책을 펴낸 인연이 있는 조철현 작가가 맡았다. 개원부터 지금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요양원은 한국인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 타계한 고(故) 이종욱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설립됐다.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 1세대들의 보금자리 역할과 함께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교류사의 상징적 공간이 됐다.



코로나19 대응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5월 12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을 통해 그들의 건강 문제를 살펴보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7개의 기관 및 민간봉사대표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나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와 실제 의료 지원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미등록 관리 문제, 자가 격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유례없는 대형 재난을 겪는 게 처음이다 보니 외국인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느끼고, 무엇보다 ‘민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이 있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의료봉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도록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게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양중 교수, (사)사랑담는 사람들 한봉재 이사장,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김명선 대외협력이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건 과장, 시흥외국인복지센터 문일균 사업팀장, 안산시 단원보건소 최진숙 보건정책과장과 최영민 주무관,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직원, 이종욱 사무총장 묘역 참배

최원일 사무총장과 류호균 혁신경영본부장 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직원들이 고(故)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서거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5월 21일 재단 임직원들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돼 있는 이 전 사무총장의 묘소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1983년부터 남태평양 한센병퇴치팀장, 백신면역국장, 세계아동 백신운동 사무국장 등 WHO의 여러 부서를 두루 거쳤다. 2003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전 세계 위생보건대책, 구호사업 등 의료 분야에 큰 공을 남겼지만 2006년 5월 과로로 타계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KOFIH 유튜브 채널 'KOFIHTub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KOFIHTube(코피튜브)'라는 새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단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 및 WHO

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한 것을 계기로 채널을 재정비하고 있다. 향후 KOFIHTube는 다양한 구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독창적 아이디어와 시각효과를 통한 입체적인 콘텐츠로 구성되며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또 재단은 이를 통해 다양한 진행 사업을 소개하고 보건의료 분야 최신 정보를 전달하며 KOFIH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최마지아 수녀, 작은 희망이 위대한 생의 시작이 되다

2010년 지진 피해로 폐허가 된 아이티에 희망을 쌓아올린 마을이 있다. '꽃동네 (KKOTTONGNAE)'라는 한글 이름을 단 이 마을에서 수녀이자 간호사로서 병들고 지친 이웃을 보듬어온 최마지아 수녀. 그의 이야기엔 작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희망에서 앞으로 나아갈 생명력을 읽어내는 힘이 깃들어 있다.

글_ 김보미



아이티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꽃동네

대지진으로부터 2년 후인 2012년, 절망에 휩싸인 아이티에 한국의 꽃동네가 들어섰다. 집과 가족을 잃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중남미 구호단체 FFTF(Food for the Poor)가 지원하고 한국의 (재)예수의 꽃동네유지재단이 운영하는 공동체가 세워진 것. 약 4000평의 땅에 325채의 작은 집들이 들어선 이곳에서 5명의 수도자와 50여 명의 직원인 노인과 아이, 장애인 등 320명의 가족을 돌보고 있다.

최마지아 수녀는 이 마을의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원장 수녀이자 가족들의 생명을 살뜰히 돌보는 간호사다. 국군간호사관학교 30기, 간호장교 대위로 제대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간호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의료인으로서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료를 보고 엑스레이 기사 역할도 수행한다. 외부 협조 업무까지 1인 다역을 도맡아 하는 최마지아 수녀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일당백의 역할을 하니깐 이 큰 꽃동네가 알차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목 외에도 입·퇴소 관리, 매월 회지 발송, 목공일까지 해내는 정타데오 수사신부, 10세 미만의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주방을 담당하면서 회지 디자인까지 일임하는 임야고보 수녀, 남자 가족들을 돌보면서 꽃동네의 시설 보수를 맡아서 하는 박요한 수사, 여자 가족들을 돌보고 회계를 담당하며

꽃동네 찬미단을 이끄는 이시문 수녀까지... 아이티 꽃동네 수도자들은 빈틈없는 하루로 촘촘하게 평온한 미래를 일궈가고 있다.

이들이 돌보는 꽃동네 가족들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병원 주차장 뒤편에서 안구 종양으로 죽어가던 사람, 쓰레기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 옛 소아 응급실 건물에서 1년 가량 버려진 채 살아가던 4명의 장애아 등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있던

사람들. 이들을 돌보기 위해 아이티 꽃동네는 기본적으로 소변검사 스틱, 혈당 체크기와 이동식 엑스레이를 갖추고 있고, 산소 생성기, 심전도 모니터링, 의료용 흡입기(석션기)와 분무기(네불라이저) 등의 의료 장비들도 갖춰 중환자도 돌볼 수 있다.

“아이티에서 의료 선교 중이신 내과 의사 하 선생님께서 정기적 왕진도 와주시고 아이티 정신과·소아과 의사 선생님, 한국에 계신 피부과 김 선생님이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수많은 이들이 건강과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부자

문을 연 지 8년, 아이티 꽃동네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환자동, 정신 폐쇄병동, 10세 미만의 아동들이 머무는 천사의 집, 닭장, 목공소, 매점, 소성당 등을 새롭게 갖췄고, 가족 구성도 크게 달라졌다. 노인 200여 명이었던 가족은 점점 늘어나 지금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울러 320명에 달한다고. 그들 중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거듭나기도 했다. 마을 일을 구석 구석 챙기고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에

나서는 그들이 최마지아 수녀는 그저 고맙다. 아이티 현지 직원들의 의식도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 꽃동네 정신을 체득해 거리에 버려진 이웃을 만나면 데려오고, 가끔 쌀이나 콩을 나눠주면 이웃과 나눴다는 얘기도 전해준다고.

오늘날의 꽃동네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의 손길도 있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봉사자들은 식료품과 의료물품을 아낌없이 보내주는 것은 물론, 직접 아이티까지 날아와 일손을 보탰다. 무더운 날씨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때가 되면 음식과 약품을 잔뜩 챙겨오는 마취과 의사 부부도 있다. “산타 할아버지도 그렇게는 못 가져오실 거예요. 이분은 꽃동네 안에 수술실을 만드는 것이 꿈이세요. 저도 함께 그 꿈을 꾸고 있고요. 저희 참 부자지요?”라는 최마지아 수녀의 말, 정말이었다.

그는 ‘인연’ 부자이기도 하다. 수많은 이를 보듬으면서 다양한 기쁨을 느끼고 때론 그들로부터 배우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청년 오델은 그가 경험한 기적 중 하나다. 국립병원 병실 한구석에 8일 이상 방치된 채 죽어가던 오델을 보다 못한 옆 환자 보호자들의 청으로 데려오게 됐는

데, 그는 머리 곳곳에 깊은 열상을 입고 간질병, 정신병까지 앓고 있어 병세가 심각해 보였다. 그런데 차츰 회복해 걷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져 매일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대 후반의 여성 조안도 꽃동네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주인공. 나체로 4차로 도로 중앙을 건다가 최마지아 수녀를 만난 그는 타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이었다. 다행히 3~4개월 후 안정을 되찾았고, 2년 후 고등교육을 받은 그녀에게 최마지아 수녀는 꽃동네 안의 작은 매점을 운영할 기회를 주었다. 다시 1년이 지난 지금 조안은 선생님, 최마지아 수녀는 학생이 되어 함께 불어 공부를 하고 있다.



수녀와 간호사, 모든 것이 감사한 순간

최마지아 수녀가 비추는 희망의 빛은 아이티 꽃동네 밖까지 닿았다. 3년 동안 매월 만나팩(Mannapack Rice, 쌀과 프로테인 가루가 든 아프리카 기아 아동을 위해 만든 봉지 쌀) 150박스와 의류, 신발 등을 쓰레기장에서 기거하는 빈민 350여 명과 나눈 것. 처음에는 몇 봉지 안 되는 쌀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지만, 만약 이 팩 한 봉지로 누군가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마

음을 고쳐먹었다.

수녀이자 간호사로 봉사의 삶을 살아온 그이지만, 처음부터 이런 삶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간호장교 의무 복무 7년을 마치고 제대 후에는 간호사 대우가 좋은 미국행을 계획했다. 몇 가지 서류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 꽃동네 병원에서 잠시 머무르며 일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3년 반으로 길어졌고 이 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아이티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었던 위험한 사건들마저 그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다. 만나팩을 트럭에 싣고 가다가 동네 건달들이 달리는 차에 올라타 도둑질할 때도, 과격한 시위로 흥분해진 거리에서 달려드는 군중을 피해 달릴 때도 언제나 그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있었다. 그 모든 시간이 그에게 귀한 보물이다. “진리를 깨닫게 해준 곳,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이 되는 곳, 나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아이티 꽃동네”에서 그는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꾸려가고 있다. ㉠

삶의 터전 잃은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인수공통감염병



글_ 이정아 동아사이언스 기자

2018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바이러스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리스트엔 에볼라바이러스와 지카바이러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 등 악명 높은 바이러스들이 속해 있다. 그런데 리스트의 맨 마지막엔 정체를 알기 힘든 바이러스가 포함됐다. ‘질병 X’다. 질병 X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바이러스를 뜻한다.

인류 전체를 위협할 만큼 무시무시한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 중 하나로 WHO 전문가들은 에볼라바이러스나 에이즈바이러스

코로나19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공수병, 일본뇌염의 공통점은 뭘까. 이들은 과거 동물 사이에서만 돌던 병원체가 사람에게까지 전해져 병을 일으키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활동과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스바이러스와 메르스바이러스, 코로나19의 기원으로 알려진 과일박쥐. 박쥐가 갖고 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중간 동물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까지 전파된 것으로 분석됐다.

(HIV)처럼 동물 간에만 전염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해질 가능성을 꼽았다.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기존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듣지 않거나, 감염된 환자에게 나타날 증상, 앞으로의 전파 속도와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WHO는 바이러스만 지목했지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곰팡이, 기생충도 충분히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19·신종플루 등 악명 높은 전염병은 대개 인수공통감염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문가들은 2015년에 발표한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동향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인수공통감염병은 약 120개이며 이 중 30~40%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특히 조심해야 할 인수공통감염병을 제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O-157), 일본뇌염, 탄저, 공

수병, 사스, 메르스, 변종 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결핵 등이다. 각각 모기나 들쥐, 박쥐, 개, 고양이, 새, 소, 낙타 등 다양한 동물로부터 전염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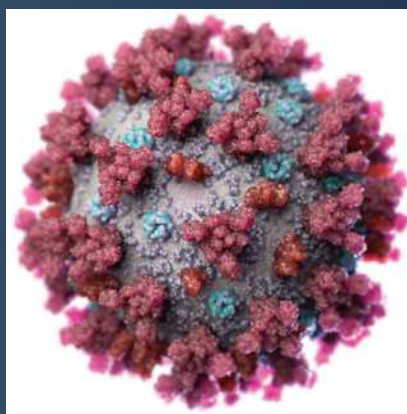
계절성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도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변이를 잘 일으켜 치료제와 백신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바이러스다. 그래서 WHO는 매년 그해 겨울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선정해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하도록 한다.

문제는 인간뿐 아니라 조류나 돼지 등 동물로부터 유래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특히 돼지를 감염시키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전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돼지의 호흡기 세포에 바이러스가 들러붙을 수 있는 수용체가 인간의 호흡기 세포에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돼지의 호흡기 세포에는 조류의 호흡기 세포에 있는 바이러스 수용체도 있다. 최악의 경우 조류 사이에서 돌던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돼지에게 전해지고, 이후 인간에게 전해질 수 있다. 만약 돼지를 거쳐 이런 무시무시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된다면 조류와 인간을 모두 전염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제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없어 전파율이나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는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9~2010년 유행했던 신종플루도 조류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일부와 돼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뒤섞인 변종이다. 다행히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서 증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치료제(타미플루)가 개발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치료제는 지금도 계절성 독감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다. 안타깝게도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극적인 방법만으로 확산을 늦추고 있다. 6월 29일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1000만여 명이 감염됐고 이 중 50만여 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는 1만2000여 명이 감염돼 282명이 숨졌다.

코로나19는 극심한 고열과 근육통, 인후통, 심각할 경우 폐 손상 등을 일으킨다. 전문가들은 원래 야생 박쥐 사이에서 돌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천산갑이나 밍크 등 중간 동물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까지 퍼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바이러스의 유전적 관계를 분석했더니 박쥐



코로나19의 3차원 모습을 가장 실제와 가깝게 구현한 이미지.

출처: Felix Donghui Son, Helix

유래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의 유사성은 89.1%나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 변이를 일으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약발이 듣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기도 한다. 몇몇 연구 결과를 통해 유럽이나 아시아 등 각기 다른 대륙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끼리 유전적인 차이가 있음도 밝혀졌다. 다행히 아직은 치료제와 백신을 따로 만들어야 할 만큼 바이러스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원인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2년 전 이미 질병 X라는 이름으로 예측됐을 만큼 전문가들은 앞으로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동물 사이에서만 전염되던 병원체가 어떻게 인간에게까지 전해졌을까. WHO 전문가들은 '산업 활동으로 나타난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류의 욕심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이 과거보다 인간과 더 많이 접촉한 탓이라고 설명한다.

존아른 로팅겐 WHO 과학자문위원(노르웨이연구위원장)은 “기후변화로 동물의 서식지가 이동하면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과거 동물 사이에서만 돌던 전염병이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캐리생태연구소 질병생태학자인 리처드 오스펠드 박사는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대형 동물은 줄어들고 들쥐처럼 병원체를 잘 옮기는 소형 동물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역으로 말하면 인류가 야생동물의 터전을 망치지 않으면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위험도 낮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미 산업화한 곳을 원래 자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긴 어렵다. 결국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찾아 이를 치료하는 약물을 최대한 빨리 만드는 수밖에 없다.

WHO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패턴이나 동물 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이 등장할 확률을 예측하는 시스템뿐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이 나타났을 경우 사람 간 전파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예측하는 시스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을 때 확산하는 양상을 예측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신종 병원체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이들 약물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K**

2020년 <KOFIH Letter> 복호를 읽고
많은 분들이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좋은 말씀,
소중한 의견을 기억하며 더 나은
<KOFIH Letter>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KOFIH Letter> 복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강예숙(인천 연수구)
공보경(부산 북구)
권기훈(경기 군포시)
김건완(경기 시흥시)
김성준(서울 송파구)
신경은(강원 원주시)
이시현(서울 영등포구)
이주안(인천 부평구)
정명진(서울 강남구)
조영민(경기 의정부시)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

<KOFIH Letter>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자유
롭게 써주세요.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9 아시아미디어타워 705, 706호
(주)코리아프린테크 <KOFIH Letter> 사보 담당자 앞

함께 만드는 <KOFIH Letter>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신경은(강원 원주시)

‘One good turn deserves another(좋은 일을 베풀면 보답을 받는다)’라고 했지요? 지금 같은 난세에 참된 매체인 <KOFIH Letter>를 만나 의지하고 살아가니 내겐 KOFIH가 평생의 파트너가 됐어요. 그런데 계간은 발행주기가 너무 기네요. 기다리는 기간이 지루해 문간에 몇 번씩 나가서 <KOFIH Letter>가 왔나 하고 찾아봅니다. 계간에서 빨리 월간으로 전환해 매월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KOFIH의 일취월장을 기원하면서... KOFIH always fighting!

이주안(인천 부평구)

올해 들어 전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를 목도하면서 (국제)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OFIH가 2006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보건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각국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데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기에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KOFIH와 같이 국제적 보건의료 지원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가 더욱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성준(서울 송파구)

복호 기사 중 ‘KOFIH와 함께 성장하는 7개의 ODA 협력국’ 부분이 깔끔한 디자인으로 간략하게 잘 정리돼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KOFIH가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단발성이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개선시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에 자긍심이 생깁니다. KOFIH의 희망의 손길을 통해 이 7개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도약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정명진(서울 강남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유독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힐링 꽃피(KOFIH)다! 영화에서 인도주의를 보다’ 코너를 통해 너무 소중한 귀한 영화들을 소개해주셔서 감동 만땅입니다.♡♡ ‘울지 마 톤즈’, ‘아픈 만큼 사랑한다’ 이 두 영화랑 함께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심리적 면역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곧 해방될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 파이팅입니다.♡♡

강예숙(인천 연수구)

‘21세기 신종 감염병 바로 알기-사스보다 최대 1000배 강력한 코로나19’ 기사를 시의성 있게 다뤄주셔서 좋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해, 더욱 철저한 예방법과 대비법 등으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다음 호엔 지구촌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의 개선편지 사진 자료 등을 함께 실어주신다면 KOFIH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직 종사 노동자 안전한 작업방법

사무직 종사 노동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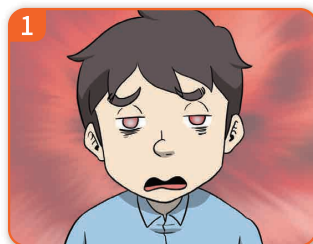
- ① 신체 활동이 적고, 장시간 컴퓨터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 ②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실시한다.
- ③ 생산 설비를 다루지 않는 등 실체가 아닌 이론에 맞춘 경향이 있다.
- ④ 작업장 외적 요인에 의하여 감정 기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실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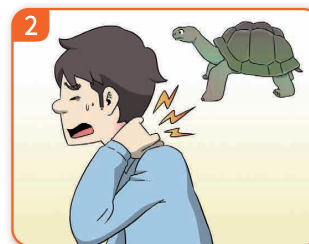
- 컴퓨터 작업, 중량물 취급 시에는 올바른 자세로 실시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한다.
- 청결한 분위기 뿐만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실행한다.

주요 위험요인



⇒ 컴퓨터 모니터를 오랜 시간동안 주시할 때

시력저하, 눈의 피로와 통증, 두통 등 발생. 눈의 충혈, 경미한 두통으로 시작하여 안구의 통증 및 심신피로로 이어짐



⇒ 컴퓨터 모니터를 오랜 시간 동안 내려다볼 때

머리가 앞으로 향한 꾸부정한 자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부드러운 C자형 목의 곡선을 잃고 목 부분에 통증 유발



에너지, 끼고



닫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요령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01

신속 통지

▶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시 한 |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5일 이내)

- | 통지항목 |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 시점 및 그 경위
 - 3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 4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5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02

긴급 조치

▶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

|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

| 긴급 조치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요청

03

대량 유출

▶ 1천 명 이상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결과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www.privacy.go.kr)에 신고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행정자치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의료진덕분에
#국민덕분에